

시온 주보

제2560호
2025년 6월 1일(다해)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그리스도의 승천

게브하르트 푸겔
(Gebhard Fugel, 1863~1939)
1893-1894, 프레스코 천장화
성 세례자요한성당
독일 라벤스부르크 오베레사흐



입당송 | 사도 1,11 참조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1-11

화답송 | 시편 47(46),2-3.6-7.8-9(◎ 6)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 에페 1,17-23<또는 히브 9,24-28; 10,19-23>

복음환호송 |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루카 24,46-53

영성체송 |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크게 기뻐하며 돌아갔다



윤웅렬 하상바로로 신부 | 사목국 가톨릭청년성서모임 담당

처마다 한 번쯤 상상해 보지 않았던가요.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시절, 아주 유명한 무협 만화를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전 소설 《서유기》의 내용에서 따온 ‘근두운’이라는 구름이 나왔는데,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만이 이 구름을 타고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만화를 보면서 팬스레 저 스스로를 가늠해 보곤 하였습니다. ‘나도 근두운을 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승천. 말 그대로 ‘하늘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승천이라는 말에는 우리 신앙인의 ‘갈급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을 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날아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 곁으로 빨리 간다는 것. 구약성경에, 승천하여 하느님 곁으로 간 인물이 두 사람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창세 5,24) 고작 한 구절에 불과한 에녹의 이야기와는 달리, 엘리야에 대해서는 열왕기에 훨씬 풍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1열왕 17,1-2열왕 2,18 참조) 한평생을 주님 말씀의 선포를 위한 예언자로 살았던 사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과 함께 사는 이를, 매우 드물게, 직접 빨리 데려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일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언제나 성령 안에서 사셨던 분. 그럼에도, 가장 사람답게 사셨던 분. 보통의 경우라면 매우 드물었어야만 할 일이, 이 하느님의 아드님에게는 마땅히 일어나야만 할 일이라고, 제자들은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사도 1,11)

승천의 사건은 하느님과 인간을 급격히 만나게 합니다. 그렇기에 신심 깊은 신앙인일수록,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만큼 열른 날아가 주님 곁에 머물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승천이, 염원이 되지 않고 현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제자들도 그 뜻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듯 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루카 24,52) 돌아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구름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복음을 믿고 기쁨 속에 파견되는 이들은 이제 땅 위를 하늘처럼 날아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들을 통해 하늘과 땅이 급격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성모님과 제자들은 황홀함과 놀라움으로 하늘로 오르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선명한 못자국을 간직한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오르시면서도 지상에 남겨진 이들을 강복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탄생,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길 기도합니다.

성화 해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임강택 마르띠노 | 평화나눔연구소 부소장

북한 연구자로서 소명과 신앙

우리에게는 저마다 특별하게 여기며 기억하는 날짜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억에는 아름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아주 슬프거나 충격적인 내용도 있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뉴욕시 한가운데에서 2,977명의 희생을 초래한 '9·11 테러'가 발생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 저는 민족화해위원회가 추진한 북한방문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건을 숙소로 묵었던 고려호텔 방에 비치된 티브이(TV)가 보여준 충돌 순간의 짧은 동영상과 평양거리에 부착된 '로동신문'의 관련 기사들을 통해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만났던 북측의 인사들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9·11 테러'가 저에게 상기시켜 주는 기억의 너머로, 2001년 9월, 그때 당시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직접 보고, 그들의 숨결을 느꼈던 그 순간들에 대한 감정들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지금도 그때를 상기하면 가슴이 찡뚱합니다. 그 당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지금 다시 그대로 복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자칫 말과 행동을 잘못하면 억류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야외 일정 중에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건물 뒤에서 들려온 동네 아녀자들의 일상이야기 속에서 느꼈던 동질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웬지 지쳐 보이는 거리의 시민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까지... 가장 강한 기억은 그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두 분의 사제를 모시고 평양을 방문했던 그 기억은, 이후 북한 연구자로서 저의 목적의식과 연구에 임하는 태도

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북한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년을 훌쩍 넘긴 제가 아직까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연구 활동을 계속하며, 최근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교회 활동에 복귀하게 된 것도 25년 전의 생생한 기억들이 제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라.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실, 정년 이후 북한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삶을 찾아 나서기도 했었지만 다른 길은 제가 가야할 길이 아닌듯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고회가 멀지 않은 나이임에도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제 모습을 돌아보면, 이 연구가 하느님이 주신 귀한 소명이자 은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일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세상을 향한 연민

우리가 저마다 예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에서 위로를 얻고,
예수 성심께 세상을 향한 연민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교향님의 기도 지향

박미정 노엘라 | 작가

거리 노숙인을 위한 '희망의 밥'이 되어 주세요



우리는 종종 노숙인을 '게으른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며 이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노숙 생활은 실직, 사업 실패, 가족 해체, 건강 문제, 빈곤 등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문제입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빚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광주대교구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숙인들을 섬기는 '천주교 노숙인 돌봄사업단'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야간 순회 방식으로 거리의 노숙인을 방문하고 상담하여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따뜻한 잠자리로 안내하며,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무료 급식소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노숙인들이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천주교 노숙인 돌봄사업단'은 긴급하게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2020년 3월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노숙인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뜻한 집밥 같은 밥을 10년 만에 먹었는데, 숟가락을 들다가 울었습니다."(김OO, 1년 전부터 급식소 이용) 차디찬 바람에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노숙인에게, 봉사자들이 정성껏 조리한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이 담긴 도시락은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돌봐준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위로가 되고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마지막 끈이 되어줍니다.

급식소를 이용하던 이OO(50세) 형제님은 약 10년간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쉼터에 입소하여 직업교육을 받고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년 전 취업에도 성공하여 하루하루를 즐겁고 성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쉼터 입소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도 해냈어, 너도 할 수 있어."라며 용원을 건네는 든든한 자립 선배이자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변화는 혼자만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정성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형제들을 향한 기도와 용원의 마음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작은 기적입니다.

현재 무료급식, 쉼터 운영, 거리 상담 등 '천주교 노숙인 돌봄사업단'의 모든 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기부금은 줄어드는데, 지원이 필요한 노숙인은 증가하고 무료 급식을 위한 식재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영혼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든든한 한 끼의 '밥'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행렬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5월 31일~7월 4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를 위해 씁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재)바보의나눔에서 발급합니다.
무통장 입금 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 ① 우측 QR코드 입력(www.babo.or.kr/hand)
- ② 전화 신청: 02)727-2507 (재)바보의나눔



(재)바보의나눔은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보여주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전문 모금 및 배분 기관(특례기부금단체)입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재)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바보의나눔
김수환 재가
2011

잔치에 응하지 않는 핑계 (루카 14,15-24)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어느 날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과 식사하시다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혼인 잔치의 비유(루카 14,15-24)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잔치 시간이 되자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이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았던 이들은 갖가지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혼인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그것을 보아야 하오.”(18절), “내가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보려고 가는 길ियो. 부디 양해해 주시오.”(19절) 등입니다. 그러자 잔치의 주인은 종들을 다시 내보내어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21절)을 데려와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여 잔치를 성대하게 치룹니다.

이 비유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먼 이들, 그리고 다리 저는 이들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외받고 비천한 이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이야말로 메시아가 행할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묘사할 때 비슷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황을 시작하시면서 회년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혼인 잔치의 비유는 곧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혼인 잔치의 비유로 생각해 보자면, 이미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초대에 기쁨에 응답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밭을 샀다는 이유로, 겨릿소를 샀다는 이유로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유 속의 사람들처럼,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실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잔치의 초대를 거절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밭을 산 것이, 겨릿소를 산 것이, 잔치에 참여하여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보다 중차대한 일은 아닐 테지요. 따라서 그러한 이유들은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 나라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에 응답하여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지요. 핑계가 아닌 응답을 통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무름(MANATILI, 타갈로그어)

: 라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요한 1,38)



최한별 소피아 | 금호동성당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

금호동 본당 청소년 주일학교에서는 2027서울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작년 8월 필리핀에 봉사 및 선교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처음 준비해 보는 해외 선교인지라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무름’이라는 주제로 “라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라는 물음을 던지며 씩씩하게 예수님을 찾아 떠났던 우리의 지난여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세 곳에서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 엄청난 폭우로 대부분의 건물이 물에 잠겼고 흙과 빗물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청소가 필요했습니다. 장애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며 그들이 갈아입은 옷가지와 수건을 빠는 일도 우리가 할 일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땀이 비 오듯 흘렸지만, 그 땀은 흙으로 얼룩진 건물도, 더러운 빨래도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말라떼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성당 구역장님과 함께 본당 관할 구역의 집과 주변 이웃들의 생활을 둘러봤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아이들을 위하여 식사도 준비하여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든 좁은 골목길, 판자와 전선이 늘어진 길을 걸으며 그곳 사람들의 생활을 눈에 담고 또 마음에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파사이’는 ‘무덤 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무덤을 관리해 주며 그 위

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방문한 곳 중 가장 열악했던 그곳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저희 교사들이 파사이로 떠나기 전 가졌던 여러 걱정을 단숨에 깨버렸습니다. 서툰 영어로 인사를 나누며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아이들이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서 허물 없이 친해져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던 ‘에덴동산’과 같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의 품 안에서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을 끝마치고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는 상황 속에서 턱까지 차올랐던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사라지고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선교 여정의 주제 성구로 삼은 복음 말씀에서 제자들은 “라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십니다. 봉사 활동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답을 청했고,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가끔 파사이에서 만난 아이들과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그 여름의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짧은 영어 문장이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공유하며 주님 안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언어, 나이, 국적을 떠나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임을,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6

궁녀의 흰 피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순교 당시 문영인 복자의 다리에서 흘렀던 피가 꽃으로 변해 공중에 떠올랐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를 그린 그림. (탁화성 화백, 절두산 순교성지 제공)

궁녀 문영인 비비아나는 7살 때 대궐로 들어가 열 다섯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예쁘고 명민했던 그녀는 신궁(新宮)의 나인이 되어 문서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열심한 신자였고, 딸이 한번씩 본가에 오면 신앙 생활을 권면하곤 하였지요. 그녀는 그때마다 자신이 대궐에서 날마다 제사 등의 미신 행위에 얽혀 있기에 궁에서 나온 뒤에나 신앙을 갖겠다고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궁녀들이 다과를 먹으며 수다를 떨다가 막 자리를 파할 무렵 그녀는 홀연 머리를 몽둥이로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자꾸 악화되자, 그녀는 본가로 보내져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온 그녀가 대세를 받았고, 그날로 그녀의 병세는 씻은 듯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대궐에서 의원과 약이 도착하거나 그녀를 돌보려고 궁녀들이 오면 그녀는 돌연 반신불수가 되어 실제로 몸이 굳어져 버렸고, 궁궐 사람들이 떠나면 거짓 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궁에서는 3년간 애를 써도 그녀의 병이 낫지 않자 궁녀의 명부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마침내 일반 백성의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후 그녀의 일상은 온통 기도로 가득 찼고, 성인전을 열심히 읽으며 그들의 표양을 본받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평판은 교회 공동체 안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주문모 신부의 시종을 들며 헌신적인 본보기로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 주문모 신부가 피신하자 그녀는 본가로 돌아와 순교의 시간을 기다렸고, 포졸들이 그녀가 앉았던 자리 아래에서 기도문이 적힌 종이를 찾아내면서 관장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온갖 회유에 굴하지 않고 위엄있고 단호하게 신앙을 증거했고, 매를 맞아 피가 솟구치면 그 피가 문득 꽃으로 변해 공중에 피어 올랐습니다. 망나니가 그녀의 목을 잘랐을 때는 젖처럼 하얀 피가 흘러내렸다는 군요. 이를 보고 놀란 관리가 지금 본 것을 절대로 발설치 못하게 아랫사람들을 단속해야 했지요. 성인전에 실린 성녀 마르티나의 기적이 그녀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강완숙 골롬바와 같은 날인 1801년 5월 22일에 26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대궐에서 나온 그녀가 살고 있던 청석동 집에 정약종이 들어가 살았고, 주문모 신부를 측근에서 모신 것을 보면, 그녀는 분명 당시 교회의 핵심부에 속한 일원이었습니다. 멀쩡하던 궁녀에게 병을 내려 세례를 받게 하고, 외교인 앞에서는 어김없이 마비가 일어나 그들의 의심을 거둔 뒤, 그 열렬한 신앙 끝에 순교의 흰 피를 피워내신 천주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6월 1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제59차 '홍보 주일'입니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김용찬 신부	휴양	신수동 본당 부주임
류호준 신부	신수동 본당 부주임	휴양

6월 5일(목)은 '환경의 날'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5년 6월 3일 이종국 바오로 신부(31세)
- 2007년 6월 8일 손영일 바르나바 신부(67세)
- 2015년 6월 7일 임응승 사도요한 신부(93세)
- 2017년 6월 6일 최승룡 테오필로 신부(80세)
- 2020년 6월 7일 정훈 베르나르도 신부(57세)

교구청 알림

2025 예언서 6월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성경 지참) / 강사: 조창수 신부
내용: 예언서의 역사적 배경과 유배 후 예언서 특강
때, 곳: 6월 6일(금)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6월 16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 성명: 김덕현 베드로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중독자와 가족의 중독회복치유피정 안내

중독대상자와 가족의 중독회복정프로그램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 6월 6일 14시~7일 16시까지(1박 2일)
곳: 인천 성안드레아 피정의 집 / 인원: 선착순 10명 이내
문의(신청) 및 주최: 02)364-1811(alcohol1952@naver.com) 서울대교구 단중독사목위원회

가톨릭 영유아(만5세 미만) 부모 교육

주제: 배움이 남는 훈육법 '훈육 잘하는 부모되기'
강사: 서혜린 교수(숭의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때, 곳: 6월 13일(금) 9시30분~13시, 교구청본관 501호 & 온라인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신청: 5월 26일(월) 10시~6월 5일(목) 16시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주최):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명동대성당 2026년 상반기 혼인예약 추첨

1) 2026년 1월~6월 혼인 예약 추첨

때, 곳: 7월 18일(금) 오후 2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낮 12시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 배부 /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수령 가능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 불가 / 문의: 02)774-1784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서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추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6월 5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김동원 국장 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단아 비잔틴 이콘전: 1전시실
우원경 개인전: 2전시실
최양선 · 이상희 · 양원희 성미술 3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6월 6일(금)~15일(주일)

2025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성음악 직무자 세미나

대상: 지휘자, 반주자 및 관심있는 모든 교우
때, 곳: 7월 12일~8월 16일 중매주(토), 최양업홀(중림동)
등록: 6월 9일(월)~27일(금)까지 / 문의: 02)393-2213~5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2025 세계평화의 바람 DMZ국제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때, 곳: 7월 10일(목)~13일(주일), 강화 · 파주 · 연천 · 철원 · 접경지역 / 홈페이지(http://caninjok.or.kr) 참조
대상: 평화에 관심있는 20세~39세 청년(내 · 외국인)
회비: 10만원 / 문자: 010-4682-2412(신청서폼 발송)
문의: 02)753-0815 민족화해위원회

2025년 어머니·아버지학교 온라인(Zoom) 교육

주제: 자녀에게 신앙이어주기 / 접수: 6월 22일까지
때: 6월 27일~7월 18일 매주(금) 19시30분~21시30분(4주)
회비: 4만원 / 사전모임: 6월 25일(수) 20시~20시45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이세라 연구원
문의: 02)744-0840 / 주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햇살사목센터

순교자현안미사 및 하루일정 전국순례 접수 안내

1) 순교자현안 신심미사(348회)

때, 곳: 6월 3일(화) 오전 10시, 절두산순교성지

2) 하루일정 전국순례

때: 6월 15일(주일), 6월 21일(토), 6월 24일(화)
곳: 갈매곶, 서곶골 / 문의: 02)269-0413
신청: 6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안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6만원(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2025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때: 6월 26일(목)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해화동)
강사: 이한석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주제: 역사와 성서-이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해 / 회비: 4만원(점심식사 제공)
접수: 5월 20일(화)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선착순 400명) /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때, 곳: 6월 2일(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안내

1)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들만을 위한 1일 피정>

2) 큰사랑 봉사회 회원 모임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3) 가톨릭 의용소방대 모임

대상: 현재 활동 중인 신자

문의(접수): 02)727-2081 큰사랑봉사회 총무

6월 생명위원회 미사 안내

1)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6월 2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2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 6월 임신부와 태아축복식

때, 곳: 6월 14일(토) 오후 4시, 명동대성당 내 영성센터 경당(1F, B103호) / 준비물: 미사준비 일체
신청방법: 6월 11일(수)까지 / 신청: 02)727-2364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카데미 / 문의: 02)727-2126

교육명: <성경순례> 저자와 함께하는 마태오 복음(허영업 신부), <렙처콘서트> 클래식, 신앙을 담다(김수연)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교구청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 · 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한국 카리타스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한국 카리타스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문의: 02)460-7638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caritas50.cbck.or.kr) 참조
주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기념행사 일정			
6월 18일(수)	개막미사	14시, 명동대성당	
	세미나1	16시, 교스트홀	
	세미나2	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6월 19일(목)	음악회	19시, 교스트홀	
	도보성지순례	9시30분, 새남터성지 → 절두산성지	
	감사미사 및 기념식	15시, 명동대성당	
6월 20일(금)	폐막미사	11시, 명동대성당	

서울주보가 지난 2023년 5월, 친환경 종이로 인쇄용지를 교체한 데 이어, 인쇄 과정에서 공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콩기름으로 인쇄 잉크를 교체했습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묵주 기도과 영신수련 피정(마리아학교)

강의·미사: 이한택 주교 / 010-2724-4819(회비 없음)
때, 곳: 6월 9일(월) 10시~13시, 가톨릭회관 7층

ICPE 두근두근 성가정을 위한 1일 피정-인격

때, 곳: 6월 15일(주일), ICPE합정
문의: 010-5646-6594 / 카카오톡 플친: ICPE

서울대교구 양원성당 설립 20주년 기념 성령기도회

강사: 김웅렬 신부 / 문의: 010-6290-1639
때, 곳: 6월 6일(금) 12시30분~17시, 양원성당 / 찬양: 하모니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6월 8일(주일)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청주 초정성령회관 성령강림대축제

강사: 한연홍 신부, 한영림 / 회비: 1만원(중식 제공)
때, 곳: 6월 8일(주일) 9시~18시, 청주교구 초정 성령회관 /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녹번동성당 성령기도회 치유 무료 피정

강사: 김성대 신부(도미니코 수도회) / 010-2452-3359
때, 곳: 6월 4일(수) 18시30분~20시30분, 녹번동성당 2층 소성당 / 내용: 말씀, 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6월 3일 박현민 신부 6월 10일 진홍장 회장

피아골 피정 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6월 20일~21일, 7월 18일~19일, 9월 19일~20일
피아골 여름 휴가	8월 15일~17일
홍성남 신부	북해도 8월 25일~28일, 아키타 9월 8일~12일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6월 13일~15일, 7월 11일~13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7월 5일(토)~6일(주일)
영신수련 8일 피정(9박10일) 8월 4일(월)~13일(수)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6월 28일(토)~29일(주일), 8월 30일(토)~31일(주일)
2박3일 6월 23일(월)~25일(수)
3박4일 6월 5일(목)~8일(주일), 7월 3일(목)~6일(주일)
8박9일 6월 12일(목)~20일(금), 7월 10일(목)~18일(금)
40일 10월 14일(화)~11월 22일(토)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6월 6일 10시~15시30분
토요성모신심 기도와 미사	6월 21일 10시~12시
다네이영성수련(대침목)	6월 27일~29일(2박3일)
대침목 피정	7월 24일~27일(3박4일)
수요 개방 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개인 피정 가능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6월 7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프란치스칸 호소 단식 피정

주제: 비움에서 충만으로
때: 매일 세번째(금·토·주일) 2박3일 / 회비: 25만원
곳: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주최) 양평 수도원
문의: 010-8858-7814 구원보 신부

성체성혈 대 축일 대 피정

주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강사: 염수정 추기경, 임수철 신부
미사집전: 추기경 외 사제단 / 회비: 3천원
때, 곳: 6월 23일(월) 13시~16시, 명동대성당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2025년 회년의 순례, 수도자와 함께 하는 제주 산들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내용: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올레길에서 회년의 은총이 가득한 순례의 길을 동행합니다
참조: 분당 단체별 신청 시 특화된 프로그램 진행
곳: 제주 변형의 집 / 문의: 064)732-4702 변형의집

2025년 서울대교구 성령쇄신 대피정

미사: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집전
강사: 김재덕 신부, 마진우 신부
때, 곳: 6월 7일(토) 9시~17시30분, 동성고등학교 대강당(해화동) / 회비: 2천원(김밥·전자차 제공)
교통: 전철 4호선 해화역 1번 출구 100미터
문의: 02)867-7900 성령쇄신봉사회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성체조배 교육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전철 4호선 미아역)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1)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
주제: 은총의 통로 미사(빛의 신비 5단)
때: 6월 8일(주일) 10시~16시(9시 미사 참석 가능)
2) 성체조배 교육 8주간
때: 6월 7일~7월 26일 매주(토) 10시30분~13시30분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분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추자도포함 제주전체 성지순례 6월 21일~23일·7월 1일~4일·9월 7일~10일·9월 18일~21일·10월 25일~28일, 자연순례 7월 12일~14일·9월 1일~3일·9월 13일~15일, 우도섬 포함 여름 피정 7월 18일~20일·7월22일~24일(차귀도)·7월 26일~29일·8월 1일~3일·8월 7일~9일·8월 11일~13일 /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d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템나 음악원(주최, 신촌)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강좌

정규한 신부 / 문의: 010-3845-3045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10주 강좌
때, 곳: 6월 12일(목) 13시30분~16시, 강남구 삼성동

영의 식별

때, 곳: 6월 14일~7월 19일 매주(토) 13시30분~16시30분, 영성센터(명동) C301호 / 회비: 12만원
문의: 010-5573-6177 사도성안드레아 수녀회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캠프 모집

미국·아일랜드 기숙사 학교 / 대상: 초3~고1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재지교회 해외학교법인

성경통독·길잡이 도형틀(마인드맵) 및 감사 피정

곳: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 샘(전철 1호선 중동역 5분 거리) / 문의: 010-3248-9705 지혜의 샘
1) 성경통독·길잡이 도형틀(마인드맵)
성경을 읽고, 살고, 선포 / 내용: 도형틀(마인드맵)을 통해 각 장의 내용을 외우며 통독함
준비물: 성경 / 회비: 교재비 2만원·참가비 1만원
때, 곳: 6월 4일부터 오전반 10시~12시·오후반 18시~20시(저녁 제공) / 대상: 누구나
2) 33일 봉헌 4차 감사 피정: 6월 9일(월) 10시~17시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캐나다 토론토대 영어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탐방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손흥민 토트넘·서유림투어)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7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center.jesuit.kr)

(월) 근·현대 문화유산 교회사	이전현 신부
(월) 월요무로 피정·의식 생활·그리스도의 시선	이근상 신부
(화) 구약성경 아카데미·사무엘기, 열왕기	주원준 박사
(수) 예수의 윤리 이야기-덕, 평화, 공동체	박상훈 신부
(목) 인간과 창조-바오로의 관점	김민철 신부

모집

서초동성당 헬름 체임버 모집 / 문의: 010-2779-1714
대상: 20~40대 남성합창 및 트롬본 / 오디션 개별 안내
11월 레퀴엠 공연 예정 / 연습: 첫째·셋째주(주일) 19시~20시

서울역 가톨릭사랑평화의집 봉사자 모집

서울역 쪽방촌 정서지원팀
대상: 남2, 여1(1960년~1970년생) / 문의: 홈페이지(www.catholiccp.com)-오픈채팅, 0507-1361-2632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첫영성체 받은(2025년 예정) 초3~초6 가톨릭 신자 /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오디션: 6월 22일(주일) 13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 6월 19일(목)까지 이메일 접수
문의: 010-2650-8014 cpbc소년소녀합창단

재속 맨발 가르멜회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 9일(월) / 문의: 010-9836-8998

성현동성당 교중미사 지휘봉사자 모집

미사: 주일 10시30분 교중미사
연습: 평일 (수) 20시~21시30분 / 대상: 가톨릭 신자로 합창 지휘 및 성가대 지휘 경력 우대
서류: 교적 사본, 자기소개서 / 문의: 02)887-4491
6월 15일(주일)까지 이메일(jifuco@catholic.or.kr) 접수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6월 6일(금)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929-2977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품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6월 19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미사 / 02)3142-4434
때, 곳: 6월 6일(금) 11시10분, 절두산순교성지

군중후원회 월례미사·특강

특강: 박재우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6월 2일(월) 14시, 국군중앙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애고개성지 내)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때, 곳: 6월 7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오푸스데이 설립자 성 호세마리아 축일 미사

때, 곳: 6월 21일 (토) 오전 9시, 도림동성당
일상생활의 성화라는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신자들을 환영합니다 / 문의: 이메일(info.kr@opusdei.org), 전화(02-727-2480)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6월 4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안내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명동 전진상 영성센터 갤러리 ‘숨’ / 문의: 02)726-0700

전통한복 전시회 ‘손끝으로 맺어진 선과 색의 조화’
때: 6월 4일(수)~30일(월) / www.jiscen.or.kr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자)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여의도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

나프로임신법(NaProTECHNOLOGY)은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생리주기 변화를 기반으로 한 원인분석-진단-치료의 과학적 가임력 관리로 건강한 자연임신을 돕는 방법입니다 / 문의(예약): 1661-7575
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모든 부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인천 동구 박문로 1) 방문·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유관단체 알림

다솔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분야: 치위생사, 행정(인사·총무) 각 0명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하여 지원서 접수 / 문의: 02)2634-1760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정규직 신입직원 모집

분야: 기술직-시설(영선) / 문의: 02)740-9707, 8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모집공고 참조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청소년문화공간JU 직원 모집

분야: 학교밖청소년 관련 사업 계약직 직원 1명
(정규직 TO) / 6월 15일(주일)까지 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부서 홈페이지(www.jju.or.kr) 확인

등촌7중합사회복지관 조리사 모집

근무: (월~금) 7시30분~14시30분 내 조울 가능, (토) 8시~13시30분(월 1회) / 대상: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급여: 2025년 서울시 어르신 급식사업 조리사 인건비 기준(2,377,360원 세전) / 문의: 02)2658-6521

(재)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 직원 모집

업무: 기부금·후원관리, 보조금지원사업, 디자인 담당자 각 1명 / 서류: 홈페이지 다운로드
6월 15일까지 이메일(recruit@wydseoul.org) 접수
홈페이지(www.wydseoul.org) 공지 참조 / 이메일 문의

창5동성당 미화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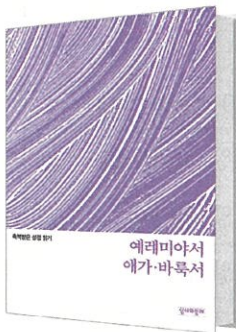
분야: 미화원(계약직) 1명 / 문의: 02)990-5684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성실한 분 / 6월 15일(주일)까지 방문 및 이메일(chang5dong8@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명일동성당 사제관 주방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6월 8일(주일)까지 우편(우 05235,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28) 및 이메일(belle14@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전형 후 개별 면접 / 문의: 02)481-0211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사랑의 씨앗 수녀회	6월 14일(토) 14시~17시	카라의 뜰(전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010-5528-3217
성심수녀회	6월 21일(토) 15시~17시	본원(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5696-2331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예레미야서
애가·바룩서

 가톨릭성서모임 엮음
 성서와함께 | 84쪽 | 4천원
 문의: 02)822-0125

《축복받은 성경 읽기》는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낱권 시리즈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과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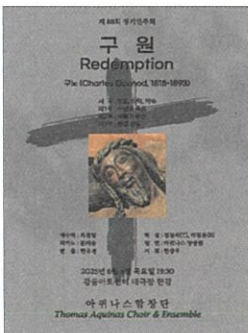


신간

일상을
새롭게 바꾸려면

 안셀름 그린 지음
 성서와함께 | 200쪽 | 1만7천원
 문의: 02)822-0125

일상에서 우리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이 책은 그런 반복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지점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시도해 보라고 권한다. 또한 일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커다란 목표를 세우기보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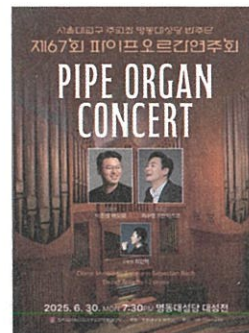


연주회

아퀴나스합창단
제88회 정기 공연

 때, 곳: 6월 5일(목) 19시30분,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 입장권: 전석 3만원
 티켓 예매: 당일 현장 판매
 문의: 010-5397-7387 합창단 부단장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
 참시 주보 1부로 4명 50% 할인

아퀴나스합창단(지도: 최효영 신부, 지휘: 한상우 교수)이 제88회 정기연주회로 구노의 3부작 오라토리오 <구원>을 공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중심으로 천지창조에서 성령 강림까지 다룬 방대한 이 작품의 한글 초연이며 준 오페라 형식으로 무대가 꾸며질 예정이다.



연주회

명동대성당 제67회
파이프오르간 연주회

때, 곳: 6월 30일(월) 19시30분, 명동대성당 대성전 / 문의: 02)774-1784(전석 무료)

이번 파이프오르간 연주회에서는 명동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인 박준병과 최수영이 연주로 나선다. 박준병은 바흐의 환상곡 '오소서, 성령이여' 외에도 트럼펫 연주자 최연혁과 함께 페르 에벤의 '금빛 창문'을 협연하며, 최수영은 메시앙의 '성찬 후 기도' 외 다양한 곡들을 연주한다.



공연

단심(單沈)

 때, 곳: 6월 28일(토)까지, 국립정동극장 / 공연시간: (화·목·금) 19시30분, (수) 15시·19시30분, (토·주일) 공휴일 15시(6월 6일 15시 공연,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전석 6만원 / 문의: 1577-3363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고전 설화 <심청>을 모티브 삼아 심청이의 내면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통연희극 <단심(單沈)>이 무대에 오른다. 간결하고 정제된 무대 연출과 전통춤이 어우러져 몰입감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배우 채시라의 무용수 도전으로 더욱 깊어진 드라마가 관객을 사로잡는다.



오페라

메리디스

 신형을 원하시는 분은
 큐알(QR) 스캔 후
 인증번호(20250606) 입력
 때, 곳: 6월 6일(금)~8일(주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공연시간: (금·토) 15시, 19시30분 (주일) 14시30분-19시
 입장권: VIP석 18만원, R석 14만원, S석 10만원, A석 6만원 / 문의: 1588-5212 오픈리뷰㈜
 상단 큐알(QR) 스캔 후 인증번호(20250606) 입력, 할인 50% 적용

실제 사건인 6·25전쟁 중 흥남철수작전을 바탕으로 한 시네마틱 오페라 '메리디스'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다. 배우 하도권, 박호산이 출연하며 오페라 음악성과 영화적 리얼리즘이 결합된 독창적인 형식이다. 성악과 오케스트라, 실시간 영상 연출이 어우러져 생생한 현장감을 전한다. 한편의 영화를 눈앞에서 보는 듯한 몰입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시대문·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희년 맞이 연희동성당 바자회

- 5월18일에 개최한 희년 맞이 바자회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되도록 후원단체에 전달하겠습니다.
- 기 부 금 : 27,358,940원
- 후원단체 : ① 이주여성그룹홈 ② 한사랑공동체 ③ 바오로교실(장애인 보호 작업장)

● 연령회 미사

- 일시 : 6월 3일(화) 오전 6시

● 성모신심 미사

- 일시 : 6월 7일(토)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6월 17일(화) 오전 10시
- *미사 30분 전부터 목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병자영성체

- 일시 : 6월 26일(목) 오전 10시 출발

● 남성울드레야

- 일시 : 6월 1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드레야

- 일시 : 6월 24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청년떼제기도

- 일시 : 6월 21일(토) 오후 4시 ~ 6시
- 장소 : 소성전

● 여성구반장 회합

- 일시 : 6월 8일(주일) 12시
- 장소 : 소성전

● 초등부 주일학교 가족 운동회

- 일시 : 6월 7일(토) 12시 ~ 오후 5시
- 장소 :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체육관
- 준비물 : 개인 텀블러, 운동화
- *점심 미제공, 체육관 내 간식 금지
- *당일 초등부 미사는 체육관에서 봉헌됩니다.



● 연성회 야외행사

- 일시 : 6월 14일(토) / 성당에서 10시 출발
- 장소 : 행주산성
- 문의 : 김무영 요셉 (010-3891-4300)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6월 3일(화)은 임시공휴일(대통령선거일)로 오전 6시미사만 봉헌됩니다. 사무실 휴무입니다.

● 6월 6일(금)은 국경일(현충일)로 오전 6시미사만 봉헌됩니다. 사무실 휴무입니다.

● 오늘은 홍보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5. 25)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04	663 (33.1%)	619 (30.9%)	42.9%	41.6%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감사헌금

故 박재욱 원선시오 상가 삼십만원

● 감사헌금 (5월 19일 ~ 5월 25일)

곽선모	오천원	이정금	오만원
박옥남	오만원	김재균	오만원
함영동	이만원	윤화중	팔십만원
햇빛부동산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성서백주잔 살롬반			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6주일)

교 무 금	8,232,000원
주일헌금	6,697,970원

입당	137	봉헌	216,217,221	성체	198,188,496	파견	141
----	-----	----	-------------	----	-------------	----	-----

